

續 費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靈嶺

61回國體記
特大號

'80. 10月

通卷第 8

□ 特輯 I / 全北 · 全北人

沿革 / 市郡現況 / 体育 · 教育現況

馬韓→百濟→朝鮮朝 脈이은 古都

言論 / 文化行事 / 人物 / 女人像

國樂登龍門 全州大私習놀이

觀光 / 土產品 / 飲食

精誠과 손맛으로 만든 비빔밥逸品

藝術 / 文化遺產 / 百濟文化圈

清香 감도는 藝鄉 · 百濟文化의 寶庫

農業 / 工業 / 港灣 / 未來像

碧骨堤와 더불어 稻作文化 발달

□ 第61回
全國體育大會 준비
全州大會를
回想한다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蘆嶺

◇...世代는 바뀌어 우리도 언젠가 빈 손으로 흙에 묻히지만 우리가 지나온 혼적만은 남기야 할 것이며 후손은 물론 他道民들에게도 우리의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體典特輯號는 우리 世代에 있어서 精神的인 遺産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17년만에 體典을 치르는 기념으로 짜임새 있는 特輯을 엮으려고 지난 봄부터 기획을 세웠지만 原稿 수집이란 커다란 벽에 가려 하마터면 좌절의 늪에 빠질 뻔 했었다.

더위와 긴장과와 땀내음이 뒤범벅이 된 채 독전 기념대장처럼 재회대로 밀고 나갔다.

누가보면 완전히 蘆嶺 體典 특집호의 포로인양이 범주를 차마 탈출할 수 없었음은 다행한 일이었다.

더위에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사를 드린다.

△△△

◇...蘆嶺이 創刊의 고개를 넘고 스스로 成長한 오늘날에 와서 民族의 全體인 全國 體育大會에 즈음하여 『全北·全北人』의 體典 特輯號를 發刊하게 된 데 참으로 감회가 깊다.

編輯委員들의 努力과 誠意가 全國民과 해외동포 속에 풍요로운 全北을 심는 데 다 소나마 寄與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蘆嶺이 地域社會開發에 精神革命의 先導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이것저것 모조리 담고 싶었던 당초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짐짓 빠뜨린分野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필자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굳이 변명하고 싶다.

◇...꽃을 잊듯이 잊어 버림시다라는 △△△의 詩句가 새삼 떠오른다.

17년전의 영광도 그 옛날의 스타도 숨막히는 產業社會에서 시달리다 보면 뇌리속에서 사라져 간다. 그러나 솔한忘却의 시간들이 엄습해와도 우리 全北人의 가슴에 영광과 긍지를 안겨준 先驅者의 역할을 한 全北人을 쉽사리 잊어선 안될 것이다. 왕년에 全北을 빛낸 徐永珠·朴美羅선수의 근황과 17년전 全州

體典때에 영광을 안겨준 主役들의 회고담을 게재하여 全北人의 心性을 재확인해 보는 것으로나마 만족해 본다. △△△

◇...한가지의 제목을 놓고 서너명의 필진이 바뀌는 혼선의 연속속에서 마감을 대느라 신들린 사람처럼 뛰었으나 막상 책이 나오고 보니 패잔병처럼 두려움이 앞선다.

그저 독자 여러분의 눈을 의식했기 때 문일 것이다.

● 그동안 게재했던 本誌의 고정란은 부득이 송년호에 실게 됩니다.

蘆嶺

8號 80년 9. 10월 合併號

61回 國體記念特大號

1980年 9月 20日 印刷
1980年 10月 1日 發行

《非賣品》

發行人·權景升

編輯人·張明洙

(「蘆嶺」編輯委員會)

發行所·社團 全州文化院

印刷所·鮮明印刷社

電話 2878

보내는 메시지	
民族祭典의 도록	徐永珠 174
문화의 嚮導역할 期待	朴美羅 175
眞髓를 만나다	徐永珠 176
정신을 아는 運動精神	徐永珠 177
老益壯을 찾아	徐永珠 214
스타	徐永珠 218

書藝	黃旭 21
東洋書藝	金鍾賢 22
書藝	宋成鎭 23
書藝	權甲石 24
東洋書藝	羅相沐 25
西洋書藝	韓召熙 26
彫刻	裴亨植 27
寫眞	權鎮喜 28
漫評	權景升 163

益山地域은 百濟文化 寶庫	金三龍 132
碧骨堤와 더불어 稻作文化 發展	梁在淑 138
韓國 最初의 법치국 지니고 있어	全榮來 123
清香한 體臭가 감도는 藝鄉	金南坤 118
精誠과 손맛으로 만든 비빔밥 逸品	黃敬淑 110
合竹扇과 太極扇의 운치로 命脈	韓鳳林 102
湖南平野와 天惠의 觀光地 調和	李化郁 92
綺羅星같은 開化의 先覺者를 배출	宋榮相 79
全北의 女人像	殷金蓮 88
國樂登龍門 全州大私習들이 등 多彩	全鍾洙 75
1個 新聞 4個 放送社가 媒體역할	文致相 68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地域文化

地域人情

地域情報

嶺

61回 國體記念 特大號 '80 10月 通卷 第 8號

表紙題字·宋 河 環 目次書·朴 敏 平

卷頭言 / 體育의 底力을 國家발전으로 昇華

張明洙 2

卷頭詩 / 멋과 맛의 고장

李基班 4

全州總論 / 韓民族의 風流가 胎動된 곳

李靑原 12

全北의 沿革	30
馬韓·百濟·朝鮮朝의 脈이은 古都	崔根茂 36
農水産이 産業構造의 大宗이된	宋河澈 46
55回 國體記念 綜合 2位한 底力保有	宋局燮 55
全北의 教育現況	蔡俊錫 59
全人的 人間育成의 貢獻에 力点	蔡俊錫 59
全北의 言論	59
全北의 文化行事	59
國樂登龍門 全州大私習들이 등 多彩	全鍾洙 75
綺羅星같은 開化의 先覺者를 배출	宋榮相 79
全北의 女人像	殷金蓮 88
湖南平野와 天惠의 觀光地 調和	李化郁 92
合竹扇과 太極扇의 운치로 命脈	韓鳳林 102
精誠과 손맛으로 만든 비빔밥 逸品	黃敬淑 110
清香한 體臭가 감도는 藝鄉	金南坤 118
韓國 最初의 법치국 지니고 있어	全榮來 123
益山地域은 百濟文化 寶庫	金三龍 132
碧骨堤와 더불어 稻作文化 發展	梁在淑 138
全北의 沿革	30
馬韓·百濟·朝鮮朝의 脈이은 古都	崔根茂 36
農水産이 産業構造의 大宗이된	宋河澈 46
55回 國體記念 綜合 2位한 底力保有	宋局燮 55
全北의 教育現況	蔡俊錫 59
全北의 言論	59
全北의 文化行事	59
國樂登龍門 全州大私習들이 등 多彩	全鍾洙 75
綺羅星같은 開化의 先覺者를 배출	宋榮相 79
全北의 女人像	殷金蓮 88
湖南平野와 天惠의 觀光地 調和	李化郁 92
合竹扇과 太極扇의 운치로 命脈	韓鳳林 102
精誠과 손맛으로 만든 비빔밥 逸品	黃敬淑 110
清香한 體臭가 감도는 藝鄉	金南坤 118
韓國 最初의 법치국 지니고 있어	全榮來 123
益山地域은 百濟文化 寶庫	金三龍 132
碧骨堤와 더불어 稻作文化 發展	梁在淑 138



論壇	秩序와 品位로 全北의 格調 부각 : 柳在榮	164
	全北人의 영원한 精神遺産 과시 : 李吉衍	168

詩	寶玉으로 빛나는 友情이여	金海剛	178
	噴水	崔世勳	180
	아름다운 體力	朴鳳宇	182
	白薔薇의 咯血	崔逸雲	184
	새 집	許素羅	186
	웅기	李炳勳	188
	빗소리	李雲龍	190
	사진한장	尹伊鉉	192

隨筆	全州의 懸額	趙炳喜	194
	故鄉의 노래	林哲洙	196
	全州工團 조성의 回顧	全漢相	197
	無言의 合意	李甫永	199
	餘裕와 香氣	高光羽	201
	새장의 門을 열자	陳永鎬	202
	農者 天下之大本	金成淵	203
	아빠의 權威	丁德龍	205
	回鄉	金英己	206
	심판번지	金鶴	208
	人心과 全北人	洪銘杓	209
	고향의 川獵	金東必	211
	全北 玄流와 함께 作品會에서 삶의 發現	編輯部	212

第61回 全國 體典 준비 落穂

□ 全州市 / 食事도 잊은채 強行軍	李棟勝	222
□ 群山市 / 서치라이트 아래서 作業	許棟壹	224
□ 全州公設運動場 / 道民에게 力作을 膳物	金典煥	225
□ 全北 防共會館 / 혹심한 寒波에 좌절할 뻔	吳鍾鎬	226
□ 式典 보디섹션 / 平面스탠드서 演習	吳吉判	227
□ 式典 女高管樂 퍼레이드 / 持久力不足으로 애먹어	孫在元	228
□ 式典 男高 매스게임 / 雨天으로 講堂서 한숨	趙順哲	230
□ 式典 女高 매스게임 / 비에 젖은 부채소리에 짜증	朴興奎	231

□ 特輯 II 44회 全州大會를 回想한다

눈물과 땀과 民泊 영원히 못잊어	崔渡喆	236
親庭서 배운 음식솜씨 유감없이 발휘	金德姬	241
不毛地에 필드하키 봄 일으켜	李俊敎	243
단발머리 少女는 맹호같이 뛰었다	吳点順	245
□ 全州의 멋과 맛의 現場을 찾아	編輯部	233

□ 卷末附錄 / 全北을 빛낸 體育의 별	247
□ 後記	250

멋과 맛의 고장

李 基 班

〈詩人・全州大 교수〉

馬韓・百濟의 하늘

李朝의 지붕 기왓골에 앉았던 햇살이

全州 窓戶紙에 내려

비늘 돌는 아침은

콩나물 해장국에 감치는

입맛으로 생기가 돈다。

冬栢꽃 벵그는 禪雲山 넘어

金山寺 彌勒殿을 돌아온

山水畵 여린 墨香을 타고

새댁처럼 오는 봄은,

錦江 굽이 돌아

蟾津江 맑은 젖줄을 빨고

목을 풀어 일찌기 눈을 뜬다。

茂朱九千洞

골골이 내리는 물

山그늘 띄워 마시면

邊山海水浴場에 人魚떼 놀고

德津公園 연꽃 잎새마다

太極扇에 이는 바람

合竹扇에 비껴 들면



두둥실 가얏고 소리 白鶴이 날은다。

金萬頃 넓은 들, 黃金이 랑을
누벼 가는 격양가 흥겨운 가락이
內藏山 꽃단풍에 춤자락 여울지는가
땀방울 맺힌 몸, 한시름을 풀고
覆分子술, 잔을 높이 들어
가을잔치에 가슴 마냥 부른다。

大屯山 雪景은

湖南의 金剛이라

山으로 가는 마음들이
젊은 기상을 앞세우고
낭만을 노래할 때,
겨울은 그대로 잠들 수 없다。

맛으로 가꿔, 힘으로 다진 몸
멋으로 다스린 品性
슬기 님은 글·글씨·그림·판소리랑
綠豆將軍·論介·春香의 열이 묻힌
내 고장길이 지켜 나아갈
너와 나, 우리의 땅
豐南門 完山鐘이 먼동을 튼다。



全州의懸額



趙炳喜

〈時調詩人〉

소위 日本統監府가 우리 강토에서 만
행을 일삼던 시절에 伊藤博文은 호리꾼
을 동원하여 古墳을 파헤치고 보물을 끄
집어 내어 明治에게 바치는 형편이었으
니 우리 文化遺蹟의 수난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全州도 1905년부터 三大門
樓를 비롯하여 城廓이 허물리고 全州監
營의 위용을 자랑했던 즐비한 官衙건물
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 파괴됐다.

50餘年전만 해도 蒼古한 건물이 더러
남아있어 고인들의 훌륭한懸額 글씨
솜씨를 볼 수 있었고 때로는 관청의 창
고에서 찾아낼 수도 있었으나 무관심한
상황에서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게 되었
다. 지난날 全州城과 全州監營의 正門이

있으며 현재 豐南門에 걸려있는 豐南門
明見樓 湖南第一城과 客舍에 걸려 있는
豐沛之館은 湖南을 대표하는懸額이라
하겠다.

필자는 만일의 재난을 염려하여 19
75년 여름에 豐沛之館의懸額을 拓本
하여 全北大學校에 기증했으며, 197
9년 여름에는 全北大學校 鄭求福교수와
豐南門 明見樓 湖南第一城의懸額을 拓
本했다.

오늘날에는懸板글씨에서도 굵직굵직
한 호와 성명을 함부로 露出시키고 있으
나 옛날 高樓나 巨額의 모든懸額에서
筆者를 찾아내기란 苦役이 아닐 수 없
다.

그러나筆者未詳에서 풍겨오는 그윽한
墨香 속에는 오히려 당시 사람들의謙虛
한人格과 深奧한雅趣가 숨어 있어 보
면 볼수록 더욱 三昧에 끌려든다.

豐南門懸額의筆者에 대해서는 구구
한 여측이 있기는 하나 아직 밝혀낼 考
證은 없다. 全義李氏 譜書에서 宣祖 때
人物로 李廷麒가 있다고 실려 있으나(李
廷麒 名載筆苑 全州 豐南門書) 豐南門이



라 비로소 이름하게 된 것은 英祖 때 觀察使 洪樂仁(재임 1767~1768)의 시절이었으니 年代가 맞지 않다.

湖南第一城의 懸板에서 湖南道伯 徐箕淳이란 도장으로 憲宗 때 觀察使 徐箕淳(재임 1842~1843)의 글씨로 밝힐 수 있다. 明見樓 懸板에는 도장이 있기는 하나 字體를 알아낼 수 없고 어느 舊邑誌에서 英祖 때 觀察使 趙顯命(재임 1733~1734)이 쓴 것으로 비쳤다. 客舍에 걸려있는 豐沛之館 懸板은 높이 1.79m 길이 4.66m로 湖南의 壯觀이라 하겠다.

어느 舊邑誌에서 明나라 朱之蕃의 글씨로 밝혀졌는데(明學士 蘭嶠 朱之蕃 豐沛之館四字偏額) 筆執가 雄健하여 龍虎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 湖南의 氣質을 드러내고 있다.

明나라 領詔使 朱之蕃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宣祖 39년(1606)으로 全北에 있는 그의 글씨로는 益山郡 王宮面 場岩의 瓢翁 宋英者(1556~1620) 望慕堂 懸額이다. 瓢翁은 宣祖 26년(1593)에 聖節使인 鄭澈의 書伏官이었고 光

海君 5년(1613)에 聖節使로 거듭 北京에 머무는 동안 朱之蕃과 두터운 친분이었다.

筆者의 先代碑文은 朱之蕃이 勅使로 은혜에 쓴 글씨로 미루어 望慕堂과 豐沛之館도 같은 해인 宣祖 39년에 쓴 것으로 여겨진다.

豐沛란 漢나라 高祖가 出生한 地名으로서 그 후 帝王의 고향이란 어휘로 사용되었으니 全州는 朝鮮朝 太祖 李成桂의 고향이란 뜻이며 豐南門은 豐沛에서 나온 명칭이다. 옛날의 懸額으로는 判東門、完東門、相西門、沛西門、中車門、拱北門이 있었을 것이요 湖南布政司 앞 八達門의 懸板은 徐箕淳의 글씨였다. 宣化堂 안 中央에 民惟邦本 本固邦寧이란 額字는 肇慶廟의 位牌와 더불어 英祖의 親筆이었다. 宣化堂의 懸額은 純祖 때 觀察使 韓用龜(도임 1802)의 글씨였다. 湖南布政司의 懸板은 李肇源(1758~1832)의 글씨요 護慶樓의 懸額은 肅宗 때 人物 宋日中(1632~1717)의 글씨였다. 또한 凝清堂 燕申堂 超然堂 觀風閣 飲醇堂 愛日樓 看劍堂 濟

南亭 등 허다한懸額이 걸려 있었다.

湖南將臺의懸額은正朝 때觀察使趙宗鉉(도임 1799)의 글씨로 모두 뛰어난 솜씨였을 것이나 애석하게도 없어졌다.

故鄉의 노래



林 哲 洙

〈味元株式會社社長〉

故鄉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고향이 얼마나 그림고 소중한가를 미처 모를 것이다.

고향을 오래 떠나서 살다 보니 고향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고향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은 설레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뭇해지기만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바쁜日程이라 할지라도 서울에서 가끔 갖는在京全北人士들의 조찬기도회를 비

고 참석해오고 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며 보고싶은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수한 고향의 사투리로 화제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는 꼭 고향의 사랑방이거나 여름철의 시원한 모정에 앉아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지곤 한다.

나의 살던 고향은／꽃피는 산골／복숭아꽃 살구꽃／아기 진달래／울긋불긋 꽃대궐／재미있는 동네／그 속에서 놀던 때가／그립습니다／의 고향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가만히 부르다 보면 옛날 옛날의 고향 정경이 아스라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사실 말이지만 인파가 밀어 닥치는 서울 길거리에서 지나치다가 고향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반가웁다. 그래서 손을 잡기만 하고 그냥 헤어지기는 무엇인가 아쉽기만 하여 근처 다방에 들러 茶를 나누며, 고향소식을 듣게 되면 괜히 신나고 하루의日課가 그저 즐거움기만 할 뿐이다.

좀 과장되었다거나 少年的인 감상이라고 하겠지만 이렇듯 고향의 후배들에게